

주 일 예 배	1부: 9시	2부: 11시	인도 이경준 목사
※ 입 레	Introit	44장 1절	인 도 자
※ 초청과기원	Call to Worship		인 도 자
※ 신 앙 고 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다 같 이
※ 찬양과경배	Praise and Worship	20장	다 같 이
교 독	Psalms Reading	32번	다 같 이
고백의기도	Confession of Sins		다 같 이

신실하신 하나님! 말과 결심으로 스스로를 세우려 하며 때로는 맹세와 과장으로 자신을 드러내려 했던 저희입니다. 연약한 존재임을 알면서도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했던 교만을 고백합니다. 수없이 다짐하고도 쉽게 무너지는 저희의 모습을 보면서도 정직하게 서기보다 또다시 스스로를 포장하며 살아갑니다. 저희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비교와 허영 속에서 참된 자유를 잃어버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저희의 말과 삶이 일치하는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용서의선언	Assurance of Pardon		인 도 자
찬 양 기 도	Hymn of Praise Prayer	412장	다 같 이
성 경 봉 독	Scriptural Reading	창세기 39:19–23 / 마태복음 5:38–48	말 은 이
		1부: 김순덕 / 안병용	2부: 양미경 / 오광중
찬 양	Anthem		1 부 찬 양 대 2 부 찬 양 대
설 교	Sermon	무너지지 마세요	이경준 목사
찬 양	Hymn of Response	563장	다 같 이
성 찬 예 식	Lord's Supper		이경준 목사
예 물 봉 헌	Offertory Prayer	211장 1절	이경준 목사
광 고	Announcement		이경준 목사
※ 파송의찬양	Song of Sending	평화의 기도	다 같 이
※ 축 도	Benediction		이경준 목사

☞ ※가 있는 순서는 일어서서 참여합니다.

☞ **다음 주 기도** 이복레 장로

맹세하지 마세요 창세기 15: 1–6 / 마태복음 5: 33–37

우리가 내뱉는 말의 무게와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합니다. 맹세란 본래 자신의 말이나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걸고 하는 강력한 다짐입니다. 우리 역시 국가에 대한 맹세나 결혼 서약, 혹은 임직 시의 서약처럼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약속의 시간을 갖곤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5장을 통해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는 다소 당혹스러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는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 수많은 서약과 약속의 전통, 심지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증인 삼아 자신의 진실함을 토로했던 모습과 대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진의는 형식적인 맹세를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굳이 맹세나 서약으로 자신의 진실함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상태, 즉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신뢰와 약속이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과거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에세네파 사람들을 향해 "그들의 말 한마디는 어떤 맹세보다 힘이 있다"라고 기록했듯이, 우리 역시 따로 확인하거나 체크할 필요가 없는 신뢰의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는 표현을 다섯 번이나 반복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단순히 실수를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본질적으로 자신의 약속과 맹세를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는 존재임을 폭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마음대로 허거나 껌게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어제 가졌던 굳은 결심이 오늘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다짐을 수없이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대단한 신념이나 굳은 의지 때문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패하는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웃의 사랑 덕분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창세기 15장의 '햇불 언약'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재우시고 홀로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를 그 약속에 묶어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전적인 은혜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사람을 배반하며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당신의 사랑을 끝까지 지켜 내십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의 의지를 과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에 기꺼이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예 할 때는 예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하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상의 과장이나 수식은 악한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풀리거나,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신을 허영으로 치장하지 말라는 요청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자신을 과장하고, 주어진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비교 속에서 불행을 자초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된 가장 건강한 삶은 '나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형편과 상황,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여정입니다.

결국 '맹세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금령이 아니라, 거짓과 과장의 피곤한 삶에서 벗어나 진실하고 자유로운 삶으로 초대하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고,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 맹세를 남발하는 대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과 함께, 나 자신을 부풀리지 않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와 "아니요"를 분명히 하며 참된 행복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나의 결심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속에서 진실한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십 일 조	강성곤 강옥수 고안순 구자운 구희언 권해차 권희자 길태식 김금애 김명신 김명에 김성수 김세영 김영례 김옥희 김유신 김은선 김현숙 김현식 남을희 류시영 박광수 박미애 박범수 박 샘 박수경 박수자 박승미 박영석 박영임 박윤미 박정순 박주향 박찬순 박창균 박혜영 박희열 박 힘 반기리 반 석 반징수 배상근 배준희 선종신 설순자 소미숙 송국희 송기찬 송성희 송순금 송자석 송하나 송행은 신을재 신항용 심연희 안길권 안병용 안성현 안인경 안진상 안진희 안효선 안효열 안효초 양계영 양해라 오세용 은호섭 원도연 원지현 유경주 유양호 육희숙 윤 관 윤순남 윤 철 이감철 이국행 이미연 이민규 이상재 이선옥 이성국 이성복 이안나 이연우 이은미 이정석 이정원 이재철 이준홍 이혜정 이희림 장성화 장재청 장철현 전현진 정명숙 조순애 조영호 최경민 최규의 최근철 최정남 한 선 한창희 홍예희 홍용표 홍은경 황인혜 김민정A 최정규B 김종희B
--------------	--

일 카 무 반 사	김명신 김순남 김영례 김용욱 김민수 김인철 박은총 박종배 박지민 박홍중 박효정 손영철 송교순 송사라 신은순 안송엽 안진희 양계영 양민숙 염번자 윤경화 정재중 조향자 최강현 최규의 최도진 최시현
생 각 일 사	김 인 박수자 소미숙 원지현 부활절 감사헌금: 1명 참여
지 선 역 교	강옥수 김명에 김현숙 반징수 송성희 신을재 안진상 윤경화 이낙용 이봉심 이선옥 이성복 이성화 정명숙 조윤희 최경민 홍예희 김종희B
동 선 추 기	강옥수 고안순 김명에 김영례 김은선 김정아 김현숙 반징수 송성희 송순금 신을재 신정자 심연희 안진상 육희숙 윤경화 이낙용 이봉심 이선옥 이성복 이성화 장재청 정명숙 조성순 조윤희 최경민 홍예희
해 선 의 교	강성곤 김명에 김영례 김옥희 김정아 박영민 반징수 신정자 심연희 안길권 안진상 원도연 육희숙 이낙용 이봉심 이선옥 장재청 조성순 조윤희 최경민 한 선 한창희 홍예희
암 선 교	강성곤 강옥수 김명에 김영례 김현숙 박 샘 반징수 소미숙 송성희 원지현 유공순 육희숙 윤경화 이낙용 이봉심 이선옥 이성복 이성화 장재청 정명숙 조영호 조윤희 최경민 홍예희
장 선 학 교	김정아 반징수 안길권 안진상 육희숙 윤경화 이낙용 이봉심 이선옥 정명숙 조영호 조윤희 최경민
재 복 가 지	길태식 반징수 소미숙 안길권 안진상 유계순 육희숙 윤경화 이봉심 이선옥 최경민 김종희B

2026년 5월 목회 일정	2026년 전도현황
3 부활절 다섯째 주일, 어린이 주일, 성찬식, 정기당회	1 정영임 안나영 김상일 윤복순 김정은 홍용표 신순금
10 부활절 여섯째 주일, 어버이 주일, 반찬나눔(16)	
17 부활절 일곱째 주일, 청년주일, 성년식, 청년부 헌신예배	
24 성령강림주일	2
31 삼위일체주일, 위임예식, 임직예식	

구역 말씀예배

오후 1시 40분

인도: 이경준 목사

다함께 찬양 경배와찬양단
 기도 안진상 집사
 성경 에베소서 5: 21-28 다 같이
 설교 주님께 하듯 이경준 목사
 말씀나눔 구역 별
 찬양 218장 다 같이
 광고 이경준 목사
 축도 이경준 목사

수요 성경 학교

오후 7시 30분

인도: 이경준 목사

찬양 다 같이
 기도 최정민 권사
 성경 사도행전 12: 20-25 다 같이
 설교 세상의 왕과 하나님 이경준 목사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다 같이
 합심기도 - 성도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다 같이
 - 5월에 진행되는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 위임예식과 임직예식을 위해서
 - 나라와 민족,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주기도 다 같이

2026년 5월 봉사 위원

현금계좌: 전북은행 1013-01-1124823

(예금주: 대한예수교장로회전주강림교회)

날짜	1부				2부				오후 기도	수요 성경학교		
	성경	기도	안내	헌금	성경	기도	안내	헌금				
3	김순덕 안병용	이병호			양미경 오광중	이병호			안진상	6	김정아 최정민	
10	김정아 신은재	이복례			양옥순 안진상	이복례	최왕규	배병희 유경주	신은재	13	권혜자 한현희	
17	국승란 안효초	최경민	구회언 양옥순	육희숙	양은순 이상재	최경민	장성화 국승란 이은미 경순이		청년부 헌신	20	김현철 한혜진	
24	이은미 유양호	최근철			양지순 이희승	최근철				안효초	27	최규익 김상일
31	전은혜 이성복	최정규			원지현 김봉수	최정규				위임식 임직식	6/3	전현진 김숙현

2026년 5월 3일 / 부활절 다섯째 주일

- 오늘은 어린이주일이며, 성찬이 있는 예배입니다.
- 강림 가족 경건회 이번 주 본문: 사도행전 4장 23절~43절
- 부임심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피택자 교육: 오늘 오후 3시, 중예배실
 - 임직예식: 5월 31일(주일) 오후 4시, 예배실
- 5월 정기당회: 오늘 오후 4시, 당회실
- 유치부 노회대회: 9일(토) 오전 9시 40분, 전성교회
- 유치부 야외활동: 10일(주일) 11시~14시 40분, 베짚이숲놀이터
- 손으로 잇는 기도: 10-17일, 2층 로비 (기도의 벽)
 -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신앙의 선배가 다음세대의 손을 맞잡는 중보기도 캠페인
 - 방법: 로비에 마련된 우리 아이들의 손바닥 카드 위에 여러분의 간절한 중보의 손길을 포개어 주세요.
- 기관별 찬양대회 팀편성
 - 모세/사라/하나 - 2남/2여/3여 - 3남/7여
 - 4남/5여 - 5남/4여/6여 - 6남/8여
 - 7남/8남/9여/10여 - 1청/2청 - 구라스
- 제3회 강림 풋살대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참여해 주신 선교회와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우승: 청년 1팀 - 준우승: 구라스
- 전도부 전도 활동: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교회
- 권사(중보) 기도회: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초등부실
- 클라함 선교회 연습: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남선교회실
- 이번 주 배식 및 설거지 봉사: 4여선교회 다음 주: 3여선교회

[교인 동정]

* 위로: 고 채영희 권사 소천(24일), 김종량 집사 아내

새벽 5시 30분 / 중예배실

월요일 // 역대하	4: 1-5: 1	()
화요일 // 역대하	5: 2-14	()
수요일 // 역대하	6: 1-42	()
목요일 // 역대하	7: 1-22	()
금요일 // 역대하	8: 1-18	()
토요일 // 역대하	9: 1-31	()